

국내 자동차 시장 정체...사활 건 수입차 공세 막기

완성차 업체 내년 신차 쏟아낸다

수입차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내년엔 출시할 신차 준비에 나섰다. 올해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현대·기아차 등 국내 업체들이 하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완성차업체는 내년엔 주력 차종과 틈새 차종의 신차로, 수입차 공세 막기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시장 조사업체 LMC 오토모티브는 최근 '세계 자동차 시장 전망'에서 한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올해 161만7000대에서 내년 162만2000대로 사실상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업체는 특히 한국 시장이 앞으로 수년간은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겠지만 2019년부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국내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량의 정체가 예상되면서 국내 업체들은 신차 전략을 가다듬는 등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선두주자는 K시리즈의 대표 모델인 K5 2세대 모델이다. 2010년 1세대 모델이 나온 이래 5년 만에 나오는 새 모델이다. K5는 2010년 출시 이후에 국내 시장에서 9만대 가까이 팔리는 등 기아차가 '디자인 경영'의 성공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 만큼 신형 K5도 디자인에 가장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이에 앞서 이달 중 K9의 첫 부분변경 모델을 내놓는다. 기아차는 K9의 전면부 디자인을 변경하고 편의사양 등을 추가해 고급차 이미지를 높여오며 에쿠스에 탑재된 8기통 엔진을 탑재했다.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에 소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투싼 3세대 모델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선다. 2004년 1세대 투싼과 2009년 2세대 투싼 ix 이후 6년 만에 나오는 완전변경 모델로, 젊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각종 첨단·편의사양이 대거 보강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는 높고 무게는 덜 나가는 초고장력 강판 비율도 늘려 안전도

기아차, K5 2세대 모델 기대

현대차, 투싼·쏘나타 새 모델 출시

르노삼성, SM5 부분 변경 모델

쌍용차, SUV 'X-100'에 사운



기아자동차 K9

역시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LF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도 출시된다. 쏘나타 PHEV는 국내 완성차업체 가운데 처음 선보이는 PHEV 모델로, 기존보다 연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이에 앞서 이달 LF쏘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고 꺼져가는 '신차효과'의 불씨를 살릴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주력모델인 아반떼가 출격 대기 중이다. 2015년형 신형 아반떼는 5년 만에 나오는 완전변경 모델로, 현재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프로젝트명 'AD'로 개발 중이다. 아반떼는 1990년 1세대 엘란트라를 시작으로 2010년 5세

대 아반떼MD에 걸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만대가 팔린 현대차의 대표 차종이다.

르노삼성은 대표 중형 세단인 SM5에 르노그룹의 새 패밀리룩을 적용한 부분 변경 모델을 내년 상반기에 내놓는다. 완전변경 모델은 2016년에 나온다. 르노삼성은 1998년 SM5 1세대 모델을 출시한 이래 2번의 완전변경 모델과 3번의 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였다.

쌍용차는 내년 1월 출시하는 소형 SUV 'X-100'(프로젝트명)에 사운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X-100은 쌍용차가 2011년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 인수된 이후 처음 선보이는 신차이다. 이윽일 쌍용차 사장은 최근 파리모터쇼에서 "X-100은 BMW의 미니 컨트리맨을 벤치마킹해 고급스럽게 개발했다"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에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GM은 경차 스파크 후속모델(M400)을 내년 출시하기로 하고 창원공장에서 시험생산에 들어간 상태다. 스파크는 지난해 월평균 5000대 이상 팔린 한국GM의 주력 차종으로, 후속 모델 역시 효과 차종 역할을 해낼 것으로 한국GM은 기대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가격 경쟁력...새로운 수요 창출”



“연비 낮아...파괴력 크지 않을 것”

현대차 전문구동 세단 '아슬란' 출시 업계 반응 엇갈려

현대자동차가 그랜저와 제네시스 중간급인 전문구동 세단 '아슬란'을 지난 30일 공식 출시하자 자동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가 아슬란을 출시한 것은 수입차가 70% 이상을 장악한 국내 고급차 시장을 뚫아왔다는 의미로, 마진이 많이 남고 부가가치가 큰 고급 대형차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막상 현대차가 2년여의 개발 끝에 아슬란을 공개하자, 업계에서는 “새로운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파괴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현대차는 아슬란을 공개하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안정적인 승차감, 정숙성을 살리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김충호 현대차 사장은 “쏘나타 그랜저를 타던 고객이 다음 차량으로 수입차를 선택할 때 가슴 아팠다”면서 “승차감과 정숙성이 최대 장점인 아슬란을 에쿠스, 제네시스와 함께 고급차의 대표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아슬란의 성공 여부는 ‘간접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현대차의 예상대로 수입차 수요가 아슬란으로 옮겨오면 현대차 전체 판매량을 키울 수 있다. 반면, 그랜저나 제네시스를 타려던 소비자들이 아슬란을 선택한다면 자체 시장을 나눠

는 ‘약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김상대 이사(국내마케팅실장)는 “아슬란은 후륜구동인 제네시스와는 구동방식이 다른 전문구동 최고급 모델”이라며 “그랜저 역시 엔트리 전문구동 모델이어서 아슬란과는 차별화된다”며 설명했다.

김 이사는 “특히 독일계 디젤 차량이나 후륜구동 차량에 피로감을 느끼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면서 “그랜저보다 600만원이 비싸지만, 제네시스보다 1000만원 가량 싸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으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고객들에게는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슬란의 내부 디자인과 연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제법 나왔다. 아슬란의 연비는 3.0과 3.3 모델 모두 9.5km/ℓ로, 제네시스의 3.3 모델(9.4km/ℓ)과 비슷하며 그랜저HG 3.0(10.4km/ℓ)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슬란의 내부 디자인이 그랜저와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어서 새로운 차가 나왔다가도 그랜저에서 차 크지만을 늘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연비를 중시하는 예도 연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현대차가 연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연합뉴스

수입차 연간 판매량 20만대 넘어설까

지난달까지 14만5844대...연말 신차 대거 출시 막판 질주

수입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수입차 등록이 사상 처음으로 20만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2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신형 수입 승용차 출시가 몰리며 수입차의 막판 질주가 기대된다.

지난달까지 수입 승용차 누적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 늘어난 14만5844대로 20만대 고지까지 5만4156대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판매 대수가 집계되지 않은 10월을 포함해 남은 기간 월 평균 1만8052대를 팔아야 20만대에 도달할 수 있는 셈이다.

올 들어 9월까지 평균 판매 대수가 1만6204대

에 비해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례적으로 연말에 소비자 관심이 높은 '기대주'가 잇따라 출시되는 것을 고려하면 20만대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표 주자는 프랑스 업체 푸조의 한국 공식 수입업인 한불모터스가 지난 29일 내놓은 도시형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인 '뉴 푸조 2008'. 이 차는 실용적인 적재 공간과 높은 연비,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입소문을 타며 예약판매 1주일 만에 계약 대수가 900대를 돌파했다. 독일 디젤 차량이 대세인 국내 시장에서 프랑스 차량이 포털 사이트 검색에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닛산과 도

요타 등 일본 업체들도 막판 뒷심 발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닛산은 지난달 중순 사전계약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예약 물량이 500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내달 18일 국내 시장에 신형 캠리를 내놓는 도요타 역시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계약 물량이 300대를 훌쩍 넘어서자 한껏 고무돼 있다.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벤츠, BMW, 폴크스바겐, 아우디 등 독일차 업체의 판매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신차를 앞세운 비독일계 업체들의 판매가 급증하면 올해 수입차 등록은 20만대를 아슬아슬하게 넘거나, 최소한 20만대 고지에 바짝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와이프 작동시 유리창에 줄 생기면 바로 교체해 주세요

Q)자동차 와이퍼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와이프 작동시 유리창에 줄이 생기면 바로 교체해 주세요. 반드시 순정품 워셔액을 사용하고, 자동차 전면유리 왁스 코팅 등은 금물입니다.

전문가 의견"와이프는 약천 후 시야를 확보해주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따라서 상시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 와이퍼 작동시 줄이

생긴다면 노후화된 것이므로 교체가 바람직합니다. 또한 겨울이 지나면 눈과 얼음 제거 등으로 와이퍼 손상확률이 높으므로 봄이 시작될 때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주차시 와이퍼는 반드시 세워주시고, 순정품 워셔액 사용도 중요합니다. 물은 기름기를 제거하는 성분이 없고, 겨울철에는 잘 얼기 때문에 사용은 금물입니다." <기아차 팜주서비스 센터 제공>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월수익500만
매가6억7천
(보4천,용자1억5천)

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량있음
(금액 4억~12억)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2억 4천)
매가 13억(보 2억, 용 5억)

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	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용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
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	5. 수원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
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월인 → 2억8천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월인 → 2억8천

010-6832-9700

오피스텔 매매 (수익상가)

1.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8평
올 리모델링 완비
천변쪽 방향 전망 좋음.
즉시 입주 가, 임대 가 보 1천, 월 70만 (용 5천)
48평 매가 1억 5천
월인 → 1억1천

2.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 완료
보 300만, 월 33만 (용 1,300만)
15평 매가 5,000만

3. 쌍춘동 원룸
운천역 1분
매가 3500만

4.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정연 오피스텔 3층 32평
매가 1억1천만 (보1천, 월70만, 용5천만)

062)527-7600

경매 무료 교육

11월초 상무지구

최고급 시설로 상무지구 중심 학원가에 오픈합니다!

기본반, 고급반, 실전반 평생최고위반 운영

경매 교육후 바로 경매 실경험으로 수익발생할수 있음!!

경매 교육에서 낙찰, 건축, 리모델링 판매까지 도와드립니다!

한국경매학원(상무점) 062)382-5500